

방  
어  
진

# 대왕암

울산광역시 동구 소식지

2024 가을호 VOL.170





# CONTENTS

2024 Fall \_ vol.170

- 4 공공생활체육시설 서부건강센터 개관
- 5 동구 워케이션센터 온오프 개소
- 6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추진
- 7 꽃바위 바다광장 & 화암추등대 전망데크 산책로
- 8 주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더 잘 사는 동구
- 10 “동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12 찾아가 봤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
- 14 구정소식
- 16 사진으로 보는 동구
- 18 동구의회 소식
- 20 동구, 이야기 속으로 <50년전 전하포구>
- 22 동구의 맛을 찾아서 <제일식당>
- 24 자연을 담은 ‘사운드워킹’
- 26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전하동 새한전자>
- 27 운동으로 재능 기부하는 마리나 씨
- 28 무궁화 꽃을 알려가는 ‘동네방네 지킴이’
- 29 동구문화원을 소개합니다
- 30 문화 동구 만들어 가는 슬도문화회
- 31 <청년, 카메라를 들다>
- 32 와인으로 쓴 편지
- 33 클래식, 동구를 만나다
- 34 동구 인권뉴스
- 35 동구 보건소 소식
- 36 동구 문화 소식
- 38 유익한 생활정보

발행·편집인 울산 동구청장 통권 170호  
발행처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디자인·인쇄 디자인 예담

## 대왕암

故 금병소 시인

울기등대 끄트머리  
바다 깊숙이 발 담그고  
우뚝 선 대왕암

그 위에 올라서면  
작은 두 눈 속으로  
넓고 광활한 바다가  
통째로 들어와 안긴다

오른쪽 눈에는 남해바다가  
왼쪽 눈에는 동해바다가  
출렁이며 밀려서 온다

하늘과 바다가 물려 휘어진 수평선  
겹겹이 밀려오는 웅장한 바다의 몸짓  
보기 드문 절경에  
흔 빼앗겨 넋 잃고 섰다가  
돌이 되고 말 것 같은 곳

대왕암공원 꽃무릇  
사진 이은수 명예사진기자

故 정제 금병소

2012년 <문화예술> 등단  
울산시협 작품상(2015)  
울산예총 공로상(2017) 등  
울산문협, 울산중구문화회 회원 역임,  
2022년 작고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슬도 초화단지에도 땀싸리가 붉게 물들고  
황금빛 팜파스 그라스가 가을을 알립니다.

조선소의 선박 엔진소리와 출퇴근 오토바이 부대로 상징되던  
울산 동구가 일과 삶이 조화롭고, 산업과 자연이 균형을 이룬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공생활체육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고,  
노동자와 주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지원하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슬도, 방어진에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일상을 위협하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온 것들은  
여러분들의 묵묵한 책임감과 헌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민 모두의 노력으로 일군 우리 지역사회의 결실을  
많은 분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곳은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더 풍성한 수확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동구청장 김 중 훈





# 공공생활체육시설 서부건강센터 개관



서부회관 리모델링...헬스·목욕탕 갖춰



옛 서부회관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활체육시설인 서부건강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울산 동구가 8월 12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건강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서부건강센터는 옛 현대중공업 직원 복지시설을 동구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한 것으로, 총 면적 1,110㎡에 목욕탕, 헬스장, 생활체조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식 이후 8월 13일 오전 6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서부회관은 1996년부터 현대중공업 직원 복지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적자누적 등의 이유로 2017년 운영이 중단됐다. 동구는 서부회관을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따라 총 37억 원을 들여 서부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올해 1월 개관했으나, 개관 첫날 화재 발생으로 다시 개관을 연기하고 화재복구 및 내부 시설 전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수차례 시설물을 시운전하며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장비교체 작업을 추진해 왔다.

서부건강센터에서는 헬스, 목욕(일일 이용 가능), 필라테스·요가 등을 1개월 단위로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동구는 서부건강센터가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생활체육시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축 시설이 아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만큼 시설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가 필요하다.

## 시설 안내

- 위 치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2, 3층
- 프로그램 | 헬스, 목욕, 헬스+목욕, 필라테스·요가
- 문 의 | 0507-1491-5568





## ☁ ☁ 완전한 일(ON)과 완벽한 쉼(OFF) ☁ ☁ 동구 위케이션센터 '온앤오프' 개소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신개념 업무 문화인 '위케이션(Work+Vacation)'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울산 동구에 지난 6월 문을 열고 본격 운영중이다.

울산 동구는 울산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동구 위케이션센터 '온앤오프'를 6월 19일 동구 일산해수욕장10길 38, 5층에 개소했다. '온앤오프'는 2023년 8월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라(GO郷ALL來)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확보한 특별교부세 4.5억 등 총 9.5억원의 사업비로 운영된다.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이 바로 보이는 상가 건물 5층을 임차 및 리모델링해 총 면적 265㎡에 개인 업무 공간, 1인 부스, 7인실, 12인실 회의공간과 40명 수용 가능한 메인홀, 휴게시설을 갖추었다.

'온앤오프(ON&OFF)'라는 명칭은 '완전한 일(ON)과 완벽한 쉼(OFF)'이라는 의미이다.

동구는 위케이션센터를 통해 타 지역 직장인과 산업 관계자들이 동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호텔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구의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 이용 방법

- 이용시간 | 매주 월~금 09:00~18: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이용대상 | 직장인, 사업자 누구나
-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https://ulsanworkation.com/>)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이 용 료 | 무료
- 공간별 사용시간
  - 미팅룸, 프라이빗룸 : 1일 최대 3시간
  - 1인 부스 : 제한 없음



### 📢 온앤오프데이(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간 | 월 2회 운영
- 이용대상 | 직장인, 사업자 누구나
- 이용방법 | 온라인 예약 (<https://ulsanworkation.com/>)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내 용 |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기 계발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일산해수욕장 사진 이은수 명예사진기자

## 신라 왕이 유람와서 머물던 곳, 일산 동구,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추진

전국적인 여름철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는 울산동구 일산해수욕장이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함께하는 청년 중심의 해양문화 놀이터로 조성된다.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은 일산해수욕장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여유가 있는 ‘한단계 더 수준높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이다.



동구는 지난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 상가변영회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4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교통안전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구는 일산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를 중앙광장형 보행로로 조성하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 중앙광장을 확장해 청년 문화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해변산책로를 조성하고 기존의 별빛광장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일산해수욕장 중앙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을 지중화 하고, 행정봉사실과 관광안내소를 각각 ‘풍류공작소’와 ‘풍류책방’으로 조성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동구, **꽃바위바다광장** 준공



울산 동구 화암추등대 입구에 꽃바위바다광장이 조성됐다.

동구는 화암추등대 진입로 입구인 방어동 959 일대에 '꽃바위바다광장'을 조성하고 8월 1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꽃바위바다광장은 7,333㎡의 면적에 총 7억 5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휴게광장, 바다광장, 분수광장 및 멀티기능 구조물 등이 있다.

바닥분수는 오후 1시, 3시, 5시 총 3차례 회당 1시간 운영되며, 이용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조명

타워는 일몰 후 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돼 시민들이 밤에도 야경을 즐길 수 있다.

꽃바위바다광장은 한동안 잊혀졌던 방어진 화암추등대 일원의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주민들에게 새롭게 알리는 역할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화암추등대 **전망데크산책로** 늘린다

울산 동구가 화암등대길 50 일원에 화암추등대 전망데크 산책로를 기존 600m에서 619m 더 늘어난 1,219m 길이로 만든다.

기존의 화암추등대 전망데크는 폭 1.8m, 길이 600m 규모로 지난 2015년 조성됐다. 동구는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바다를 보며 산책할 수 있도록, 기존 산책로를 연장해 폭 1.8m, 길이 619m 규모의 산책로를 10월 말 준공 목표로 연장 조성하고 있다.

동구는 화암추등대 전망데크산책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난 8월에 조성된 꽃바위바다광장과 함께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확충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더 잘사는 동구'

“마을교사 선생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 학교에서 체험으로 배우는 동구 **마을교사 교과연계수업**



2024년 제2기 마을교사 양성과정



동구 마을교사 교과연계 (만들 동아리)



동구 마을교사 교과연계 수업 (만들 동아리)

동구는 6월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마을교사를 파견하여 동구와 교과를 연계한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교사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교육에 참여하는 주민 선생님을 말한다. 동구는 마을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난해 88명의 마을교사를 양성하였다.

마을교사 교과연계 수업은 학생들이 동구에 대한 이해도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정규 교과 시간 중 마을교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지역 연계 수업이다.

‘마을교사가 알려주는 재미있는 동구이야기’라는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에서 많은 관심 속에서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신청 학교 별로 200여회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주전의 미역을 이용한 요리활동, 동구 캐릭터 ‘도리’ 키링 만들기, 방어진항의 역사 이야기, 마성돌에 얹힌 이야기와 마성돌 키링 만들기 등 학생들은 마을 교사와 함께 동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동구의 역사, 문화, 생태를 알려주는 마을교사는 인기에 힘입어 9월부터 2기도 양성 중에 있다.

문의 | 동구청 교육정책과 052)209-3216



## 주민 참여로 만들어 가는 '더 잘사는 동구'

## “신중년의 활기찬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 동구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추진

울산 동구는 지난 5월부터 울산광역시 중 처음으로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10개 단체를 선정·운영 중이다.

신중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은 재직 중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아리 활동이 퇴직 후 자연소멸 되는 것을 막고 신중년의 놀거리와 할거리를 지원하면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고자 계획되었다.

동구는 3월부터 참여 단체를 모집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60~100만원의 활동비와 함께 노동자지원센터 내 커뮤니티 룸을 모임공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4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만들어진 커뮤니티 단체들은 각양각색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었다.

‘슬도사람들(슬기롭게 도우며 사는 사람들)’은 대왕암 공원 및 일산지 등 동구 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플로깅을 하며 관광지 내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5060스마일’은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



신들에게 꼭 알아야 하는 스마트폰 사용법과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 퇴직자로 구성된 ‘나은동지회’는 청년 구직자 대상 진로상담 및 모의면접 등 청년 구직을 위해 활동 중이다.

‘동사무소(동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동구 주민으로 구성된 강사모임으로 구민 대상 강의를 진행 중이며, 이 밖에 버스정류장 청소를 하는 ‘상떼빌사랑단’ 목공기술을 이용한 봉사를 하는 ‘버팀목봉사단’ 난타 및 전통춤을 통한 재능 기부를 하는 ‘춤추는난타’ ‘슬가락난타두드락’ ‘전통춤 나들이’ 등이 활동하고 있다.

## ● 울산동구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단체

순번	단체명	활동내용	순번	단체명	활동내용
1	동사무소	평생교육 강사, 주민교육활동	6	나은동지회	청년취업 멘토, 자격증 취득
2	5060스마일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7	버팀목 봉사단	목공품 제작 물품 기부
3	신중년의꿈	독서토론, 신중년 소통	8	춤추는난타	난타 공연 재능 기부
4	슬도사람들	대왕암-슬도 플로깅	9	슬가락난타두드락	슬가락난타 공연 재능 기부
5	상떼빌사랑단	버스정류장 청소 봉사	10	전통춤 나들이	전통춤 공연 재능 기부

● 문의 |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052)209-6972



# 울산동구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공유주택 운영 사업에 소중한게 쓰이고 있습니다.



## (주)두남이에스 문광중 대표

(주)두남이에스 문광중 대표는 9월 2일 김종훈 동구청장을 만나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주)두남이에스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전기안전관리 전문대행 업체로, 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꾸준한 기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동구지역 4개 어린이집 연합회

울산 동구지역 4개 어린이집 연합회는 8월 28일 동구청을 찾아 작년 6월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번 기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서은원)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전수경) △직장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명남) 등 4개 연합회 회원 43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 영천 두리기업(주) 김창길 대표

경상북도 영천 소재 두리기업(주) 김창길 대표는 8월 26일 울산 동구에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두리기업(주)은 2005년 설립하여 물탱크 전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물탱크 전문기업으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벌강소기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로 영천지역 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 (주)지오건축사사무소 심상우 대표

(주)지오건축사사무소 심상우 대표는 8월 23일 울산 동구에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심상우 대표는 울산 북구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울산 동구 지역발전과 나눔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 강중수&진용현 안과의원 강중수 원장

강중수&진용현 안과의원 강중수 원장이 8월 21일 울산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강중수 원장은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1987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각종 기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사)울산시자원봉사센터 김석원 이사장과 가족

(사)울산시자원봉사센터 김석원 이사장과 가족이 8월 20일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김석원 이사장은 방여동 초대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내는 등 지역 발전에 앞장 서 왔으며, 꾸준한 기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주)중원 김주영 대표

(주)중원 김주영 대표는 7월 18일 김중훈 동구청장을 만나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김주영 대표는 울산 울주군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지역발전과 나눔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다.

### (주)케이알오토 박철환 대표

(주)케이알오토 박철환 대표가 7월 4일 동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박철환 대표는 울산 북구 효문동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조립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지원에 동참하고자 기부에 참여했다.



### 곰두리렌트카(주) 정진규 이사

곰두리렌트카(주) 정진규 이사가 5월 30일 동구청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정진규 이사는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차량렌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주)고신 김지영 대표

(주)고신 김지영 대표가 5월 7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지영 대표는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 실내건축 공사, 도장·방수 등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사)한국나눔복지회 김민영 대표

(사)한국나눔복지회 김민영 대표는 4월 18일 동구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사)한국나눔복지회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이다.

### 동구-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 교차 기부

울산 동구와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5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교차 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호 지자체에 각 150만원씩을 기부했다.



### 울산 동구-광주 서구 축구동호회 교차 기부

울산 동구와 광주 서구 축구동호회 회원은 6월 1일 북구 강동구장에서 자매결연도시 교류 축구경기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백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울산 동구와 광주 서구는 1999년 7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양 지자체 간 단체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 축구동호회는 매년 서로의 도시를 교차 방문하여 경기를 가지는 등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개인이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 연말정산 세액공제 100% 혜택 ▲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울산 동구는 현재 용가자미, 무추첨 캐라반 이용할인권 등 30여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 동구에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기부할 수 있다.



## 모두 함께 더 행복한 동구를 꿈꾸는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최선자 명예기자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가 8월 28일 동구 명덕로 19에 문을 열었다.

이 곳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름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바꾸어왔다.

2017년 9월에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퇴직자들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퇴직자지원센터로 문을 열었다가, 2021년 1월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바뀌었다. 당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 각각 흩어져있던 조선업희망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추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노동자지원센터는 기존에 하던 지원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주민 대부분인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조선업 종사자들이 많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를 돕는 근골격건강지원센터를 4층에 선보였다.

노동자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지역 주민의 생애설계와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다. 1층에 쉼터, 2층에 사무실, 정보화교육실, 교육실, 상담실이 있으며 3층에는 강당과 교육실, 커뮤니티룸, 카페가 있다. 근골격건강지원센터는 4층에 마련되어 있다.

노동자지원센터에 들어가면, 1층부터 4층까지 깔끔하게 조성된 실내공간이 시선을 끈다. 1층 쉼터는 퇴직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시사와 인생사를 논하며 쉼을 즐기는 공간이다.

2층과 3층은 각종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애설계 교육과 컨설팅, 정보화 교육, 사회공헌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2층 사무실 안에는 양 옆으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마련되어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지원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법률지원 및 상담,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생애설계 · 취업상담 · 주민 건강관리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돕는다

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선순환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상담과 교육을 거쳐서 배출되는 주민 봉사자들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봉사를 하며 사회 기여를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재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3층 카페는 사방이 밝고 편안한 분위기라서 만남이나 사색의 시간이 필요할 때 스스럼없이 찾을 수 있는 부담 없는 곳이다.



사무실 옆의 정보화교육실에서는 '휴대폰 활용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육 중간의 휴식 시간에 만난 주민들은 “우리 세대한테는 꼭 필요한 교육을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카페에서 만난 이광제 씨와 이은학 씨는 “활발한 봉사활동으로 노후의 건강과 활력을 찾는다”며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듣고 배우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며 “모두 알차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배운 것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노후에 봉사도 할 수 있다”며 노동자지원센터 이용을 적극 추천했다.



노동자지원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은 이번에 선보이는 ‘근골격건강지원센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노동자와 동구민을 위한 맞춤형 운동지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 출신의 운동전문가인 백태열 팀장(울산과학기술대 학교 산학협력단)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재활운동이나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면서 노후 생활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생활, 건강을 비롯해 교양, 인문학과 각종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하다. 주민들의 참여도 높은 편이다.

노동자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윤형진 실장은 “동구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생애설계를 다양화해서 ‘찾아가는 생애설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주민들에게도 멘토링과 다양한 생애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알찬 교육 구성으로, 노동자, 퇴직자 및 청년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을 아우르는 주민 친화적 기관으로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노동자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 19 (현대예술관 맞은 편)

- 생애설계교육 052) 209-6970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052) 209-3975~6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2) 209-6950~4
- 근골격건강지원센터 052) 234-0905

### 노동자지원센터 주요 기능

#### 생계설계지원

- 생애설계 교육 및 컨설팅
- 정보화교육
- 직업직무교육
- 사회공헌 및 커뮤니티 활동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취업상담, 집단상담
- 직업교육훈련
- 취업연계, 여성인턴지원
- 취업 후 사후관리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법률지원 및 상담
- 노동 강연 및 토론회
-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 근골격건강지원센터

- 개인 운동지도 프로그램
- 자율 운동지도 프로그램
- GX룸 그룹운동 프로그램





## 울산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울산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에 대한 급식관리를 통합해 7월부터 '울산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중이다.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개소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었다.

한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구는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어린이 급식소에서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울산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50인 이하 노인·장애인 시설을 직접 방문해 △ 식습관 분석을 통한 맞춤 식단 및 레시피 개발·제공 △ 조리원·종사자·이용자에 대한 대상별 방문교육 △ 위생·영양관리 방문지도 등을 수행하고 있다.

## 2024년 하반기 대왕암 달빛문화제 개최

- **일** 시 : 10, 16.(수) 19:00 ~ 21:00 예정 (개회식 19:30) ● **주요내용**
  - ※ 체험행사 18시부터
  - 달과 빛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달빛기행
- **장** 소 : 대왕암공원 일원
- **참가대상** : 주민 및 관광객 등 500여명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동구
- 식전공연, 개회식, 주제공연
- 테마가 있는 달빛걷기 및 체험행사 (2종)
-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 **기** 간 : 2024. 8. 1. ~ 11. 30.(※ 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동물등록일 기준으로 주소가 울산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는 반려견 보호자
- **지원조건** : 반려견을 내장형 칩(무선식별장치)으로 동구 내 동물병원에 동물등록하는 경우
- **사** 업 량 : 150두
- **지원단가** : 1마리 당 3만원  
(내장형 칩 가격이 3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까지)  
※ 단, 보호자(주소 기준) 1명 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반려견 내장형 칩(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기존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문** 의 : 동구청 해양수산과 052)209-3373





##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문의 : 동구청 교육정책과 052)209-3233

가이드와 함께 랜선으로 떠나는  
〈달빛 테마 여행 : 유럽편〉

- 일시 : 9. 30. ~ 10. 25. (매주 월) 저녁 7시
- 장소 : 카페 일산지, 카페 콜링포트
- 내용 : 동구 내 카페와 연계하여 여행관련 야간 인문학 강좌 운영 (스페인 안달루시아, 영국, 이탈리아 남부 소도시)
- 신청/수강료 : 동구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신청 / 무료

도슨트 클래스,  
빛과 색채의 거장들

- 일시/장소 : 10. 1. ~ 10. 22. (매주 화) 오전 10시 / 현대예술관 시네마 2관
- 내용 : 현대예술관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화가의 삶과 작품에 관한 도슨트 강연 (스페인 바로크 회화, 영국 현대미술, 오스트리아 예술, 이탈리아 예술)
- 신청/수강료 : 동구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신청 / 무료

달月달達한 목요 인문학  
〈10월 주제 : 다정한 과학〉

- 일시/장소 : 10. 10. ~ 10. 31. (매주 목) 오전 10시 / 동구평생학습관 3층
- 내용 : 내 생의 중력에 맞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날마다 우주 한 조각, 관계의 과학
- 신청/수강료 : 동구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신청 / 무료

나를 위한 건강공부,  
내 몸 독학

- 일시/장소 : 10. 10. ~ 10. 31. (매주 목) 저녁 6시 30분 / 동구평생학습관 3층
- 내용 : 내 몸 관리를 주제로 한 야간 강좌 운영 (건강한 식사법, 마음 관리법 등)
- 신청/수강료 : 동구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신청 / 무료

그림책과  
숲으로 철학하기,  
그: 숲에

- 일시 : 10. 21. ~ 11. 18. (매주 월) 오전 10시
- 장소 : 대왕암 공원, 염포산, 슬도, 명덕호수공원, 화정가족문화센터 (2층)
- 내용 : 숲 해설사와 함께 매주 동구의 숲을 거닐며 그림책을 통해 철학적 사고를 키우는 과정
- 신청/수강료 : 동구평생학습포털 온라인 신청 / 무료

구민교양  
강좌 안내

- 일시/장소 : 10. 30.(수) 14:00 / 동구청 2층 대강당
- 내용 : 표창원 프로파일러가 알려주는 행복의 조건
- 대상 : 희망주민 누구나 선착순 무료
- 문의 : 동구청 교육정책과 052)209-3232





1 동구는 8월 12일 옛 현대중공업 직원 복지시설인 서부회관을 공공 생활체육시설로 새롭게 조성한 서부건강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2 동구는 8월 13일 화암추등대 입구 일원(방어동 959)에서 '꽃바위 바다광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3 동구는 8월 28일 명덕로 19에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노동자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4 동구는 8월 23일 HD현대미포조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했다.



5 동구는 8월 15일 서부구청에서 동구축구협회와 공공기관 축구동호회 8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8.15 광복절기념 방어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6 동구는 9월 4일 옥류천 공영주차장 앞에서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목1동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행사를 열었다.







7 NH농협은행 동울산지점(지점장 김원배)은 7월 30일 동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1천만원 상당의 쌀 380포를 전달했다.



8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협의회(회장 송연정)는 8월 20일 희망장 애인보호작업장에서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삼계탕 대접행사를 가졌다.

10 동부로타리클럽(회장 김상수)은 8월 27일 타니베이호텔에서 캄보디아 꾀뽀웃 동부초등학교 건립 국내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9 김진국 선진기업 대표는 8월 28일 김종훈 동구청장, 여자축구단 학생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서부초교 여자축구단에 매월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11 동울산새마을금고(이사장 김치규)는 9월 5일 동구청 광장에서 500만원 상당의 어르신 보행기 31개를 전달했다.



12 동구새마을협의회·부녀회는 9월 2일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풍 산신의 영향으로 밀려온 해초류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 동구의회

# 제220회 제1차 정례회 및 하반기 원구성



동구의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8대 전반기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혜빈)는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을 심사해 실·과·소별로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윤혜빈 의원 대표발의),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강동호 의원 대표발의), 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심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됐다.

5분자유발언에서 윤혜빈 의원은 울산대학교병원 이전이 아닌 존치를 통한 동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이 실질적인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21회 임시회(7월 1일)와 제222회 임시회(8월 23일)에서는 제8대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졌다. 박경옥 의장, 박은심 부의장, 윤혜빈 의회운영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박경옥 의장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더 잘사는 동구, 살고 싶은 동구, 일할 수 있는 동구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심 부의장은 “의원들과 소통하고, 배려와 협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혜빈 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동료의원들의 당부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박경옥 의장



박은심 부의장



윤혜빈 운영위원장



박문옥 의원



임채윤 의원



강동호 의원



이수영 의원





제16회 찾아가는 열린 의회교실

동구의회 의원들은 7월 5일 의회와 동구청에서 화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 '제16회 찾아가는 열린 의회교실'에 참석했다.



2024 조선해양축제 개막식

동구의회 의원들은 7월 19일 일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24 조선해양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조선해양축제 나이트런 일산

동구의회 의원들은 7월 20일 일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된 2024 울산조선해양축제 나이트런 일산에 참석했다.



서부건강센터 개관식

동구의회 의원들은 8월 12일 서부건강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개최된 서부건강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꽃바위바다광장 준공식

동구의회 의원들은 8월 13일 화암추등대 입구 인근에서 개최된 꽃바위바다광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제74회 8.15광복절 기념 방어진축구대회

동구의회 의원들은 8월 15일 서부축구장에서 개최된 제74회 8.15광복절 기념 방어진축구대회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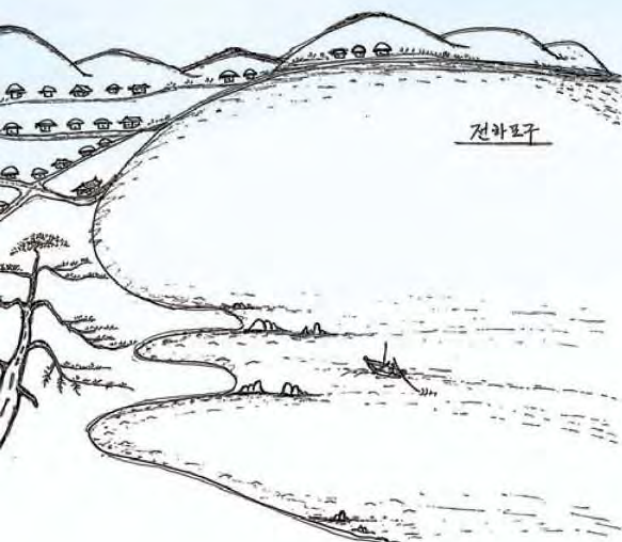
50년전 울산동구는 어땠을까 <전하 포구>

## 임란 의병이 왜구 물리친 **진성골** 마을을 지켜주던 **돌안산**

옛 모습 사라졌지만 아름다운 추억은 가득

글·그림 김광열 작가

전하동 전하 포구는 돌안산 남쪽 바닷가로 주변 해안선이 아름다운 작은 어촌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바드래라 불렀는데 바드래는 발 아래를 발음 나는 대로 표현한 것이다. 즉 발 아래 마을이라는 의미다. 전하동 동북쪽 돌안산의 능선과 포구에 자리하고 있던 마을이 녹수마을인데 옛날 이 마을의 조금 북쪽에 있는 낙화암에 유람 왔던 처녀가 그만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다. 얼마 후 죽은 처녀가 입고 있던 녹색의 비단 저고리 소매만 이곳으로 떠밀려 왔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곳을 녹수금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줄어져 녹수가 되었다. 1970년 당시 녹수 마을에는 67가구 2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현대중공업 1, 2 도크가 있다.



녹수마을과 전하마을을 이어주던 돌안산은 해발 41m로 현재 현대중공업 영빈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산은 해풍으로부터 녹수마을과 전하마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산등성이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동쪽 언덕의 잔디밭은 놀이터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했다. 특히 이곳에서 진행한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는 이 고장의 이름난 행사였다.

이 산 밑 바닷가는 해산물이 풍부했으며 특히 미역이 유명했다고 한다. 돌안산과 녹수만 사이에 퇴적물에 의해 생성된 목섬이 있었는데 바닷가 목섬은 밀물 때는 섬이 되고 썰물 때는 육지와 연결 되었다. 목섬에는 정어리 공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멸치 건조 공장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노송이 있어 그네뛰기를 하기도 했던 곳이다. 그 앞바다를 목섬 바다라 하였으며 이곳에 있었던 두꺼비 모양의 바위를 두꺼비 바위라 하였다.





① 1970년대 현대중공업 기공식 직후에 촬영된 옛 돌안산의 모습  
② 돌안산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HD현대중공업 영빈관이 들어서 있다. (2024년 7월 촬영)



사진제공 HD현대중공업

이와 같이 전하동은 일산동과 마찬가지로 산지 뿐만 아니라 바닷가를 끼고 있어 다양한 바위가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뛰어난 경치를 자랑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일본 침략군을 물리친 골짜기라 하여 전승골이라 불렀는데 이것이 변해서 진성골이 되었다. 지금의 울산 동구 동부경찰서 일대를 말하며 이 골짜기에 있었던 성을 진성골 산성이라 했다.

범잔채골은 구 다이아몬드 호텔(현재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북쪽 골짜기로 범(호랑이)이 잔치를 벌인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돌안골은 지금의 울산대학병원 바로 위에 있는 명덕저수지 일대를 말한다. 이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발원하여 병원과 중공업 정문을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천이 명덕천이다.

명덕마을은 바닷가에서 떨어진 산간마을이었는데 농업을 위주로 하던 이 마을의 당산나무가 현재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 있는 노송이다. 건설 당시 이 나무를 베어 버리려 했으나 정주영 회장의 지시로 남게 되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신 목재를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경관과 여러 이야기를 갖고 있던 전하마을 일대는 1970년대 초부터 삼시간에 공장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현대조선의 착공식이 있던 1972년에는 담장이 없어 공장 경계도 분명치 않았다. 동구 방어진에서 출발해 당시 울산 종점 옥곡동까지 가는 버스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세월이 어제 같은데 허물고 밀고 깎던 공사는 이제 다 아물어

지고 굳어져서 제자리 잡은 지가 반세기를 넘었다. 그 옛날 조용했던 작은 전하포구는 이제 그 모습을 영영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다.

하나 더, 일산동 골자락과 전하동 시작점이 현재의 중전기 정문 앞 부근인데 이곳을 기점으로 바닷가 쪽은 오좌불 백사장 해변이고 그 반대편 산 쪽은 배산시 마을이라 했는데 그곳 배산시 마을은 유독 배 과수원이 많았다.

당시 방어진 일대는 배 과수원은 고사하고 배나무 구경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특히 동진, 내진, 서진 등 방어진 항구와 가까이 있던 자연마을은 아예 배나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농사가 있던 번덕, 대송 등 산지마을 쪽에는 서너 군데 작은 수의 배나무 밭이 있었다.

하지만 배산시는 수천 평, 수만 평의 배 과수원들이 모여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량으로 배를 재배했다. 나는 처음 배 밭을 보고 배 열매를 종이로 덮어 놓은 것이 궁금해 왜 그렇게 해두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언젠가 그 배 맛을 볼 수 있었다. 친구 집이 배산시 마을에서 과수원을 크게 했는데, 책보자기에 배를 싸서 가지고 왔다. 배는 색깔도, 크기 도 좋은 상급품 배였다. 먹어보라고 하여 한입 베어서 먹어 봤는데 물이 많고 달고 맛이 좋았다. 배를 귀하게 여기던 그 시절, 그 배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후 이곳 일대는 10년도 못 가고 공장용지와 주택지로 변모해 수십 미터, 아니 수백 미터 줄을 서 있던 배나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더는 배꽃이 만발하던 배산시 과수원을 볼 수 없으니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이 솔솔 피어난다.



## 너희가 두루치기를 아느냐? 자타공인 울산 최고의 두루치기 맛집 '제일식당'



### 글 이상길 칼럼니스트

울산동구 서부동 토박이. 울산제일일보 기자이자 영화·드라마 파워블로거. 내돈내산 내맘대로 맛집 탐방을 하며 간간한 입맛으로 평가한 음식을 감칠맛 나는 글로 선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소울 푸드인 '두루치기'와 '제육볶음'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고추장 베이스에 맛은 비슷하지만 레시피에서 제법 큰 차이가 있다.

제육볶음은 양념에 미리 재운 뒤 기름에 볶지만 두루치기는 재우지 않고 바로 돼지고기와 양념, 각종 채소를 한데 넣어 볶는다. 해서 같은 돼지고기라도 제육볶음보다는 두루치기가 고기의 식감이 더 살아있다. 다만 그런 만큼 두루치기는 재료도 잘 써야 하고, 잘 볶아야 한다. 이 말인즉슨 세상에 존재하는 두루치기의 맛은 천차만별이라는 뜻. 그렇다. 비슷한 맛의 제육볶음은 맛집을 찾기가 비교적 쉬운데 두루치기는 그렇지 않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도시락 반찬 같은 제육볶음은 맛집이라는 개념이 잘 없는데 두루치기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 두루치기 마니아인 필자가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제일식당'을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의 퇴근길에 갑자기 맛있는 김치찌개가 당겨 검색한 스마트폰이 집 근처 '제일식당'으로 인도를 한 것. 사실 수십 년 동안 매일 지나다니는 출퇴근길에 이미 제일식당은 있었지만 인연이 없었던 탓에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다. 다만 속으로 '저 집은 뭐가 맛있길래 늘 손님들로 붐비지?'라는 생각은 가끔 했었는데 드디어 그날 저녁 그게 '두루치기'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됐다.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막상 앉았더니 메뉴판에 두루치기 1인분도 팔더라는 것. 또 대충 훑었더니 식당 안 손님들 대부분이 두루치기를 먹고 있어서 나 역시 마음을 바꿔 두루치기를 시키게 됐다.

잠시 뒤 나온 두루치기는 맛을 보기도 전에 비주얼 자체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했다. 바로 두꺼운 돌판에 실려 온 것. 이름하여 '돌판 두루치기'였다. 돌판의 장점이란 게 그렇다. 달궈진 돌판은 열을 오래 머금기도 하지만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하는 매력이 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해도 이 집 두루치기는 돌판이 진심 한 몫한다. 게다가 두루치기에 쓰이는 돼지고기가 '대패삼겹살'이라는 것. 두꺼운 돌판에서 지글지글 끓는 야들야들한 대패삼겹살이라니, 그날 첫맛을 보자마자 난 확신했다. 두루치기에 '정석(定石)'이 있다면 이 맛이라고.

사실 두꺼운 삼겹살보다 얇은 대패삼겹살이 두루치기에 더 잘 어울리는 건 바로 고추장이 베이스인 양념과의 관계 때문이다. 두꺼운 삼겹살은 고기 맛이 강해 양념이 상대적으로 죽는 경우가 많지만 얇은 대패삼겹살은 고기와 양념 맛이 1:1로 균형을 이루면서 즉석에서 서로 스며든다. 이 집 두루치기가 아주 맛있는 제육볶음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게다가 두루치기는 고작 남은 양념에 비벼 먹을 수 있는 제육볶음과 달리 볶음밥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 집은 손님들이 직접 남은 고기와 함께 볶음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참기름과 잘게 썬 김치, 김 가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볶음밥 맛요? 말해 뭐해. 두말하면 숨 가쁘지.

그날 이후 퇴근길에 비가 오거나 갑자기 매콤한 음식이 당길 때면 난 영락없이 제일식당을 찾았고, 지글지글 끓는 두루치기와 함께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는 낭만을 누렸다. 쉬는 날 동구에서 사람들을 만나 점심을 먹을 땐 맛집 소개차 여러 명이서 찾기도 했는데 다들 맛을 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참, 이 집은 밀반찬도 발군인데 무엇보다 두루치기를 시키면 귀한 재첩국이 함께 나온다. 또 처음 먹으려 했던 김치찌개는 물론 순두부찌개 등도 일품이다.

끓을 수 없는 두루치기의 유혹을 못 참아 며칠 전 지인들과 다시 제일식당을 찾았더랬다. 오전 11시 반도 안 됐는데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간신히 남은 자리 하나를 빠르게 점령한 뒤 3명에서 4인분을 시켜 밥까지 볶아 싹싹 비웠다. 맛집 칼럼을 위해 그날은 사진만 찍고, 며칠 뒤 한가할 때 찾아 주인장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집이 무려 40년이나 됐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1980년대 초 개업했을 땐 갈비탕이나 육개장 등을 파는 일반 식당이었다가 25년 전부터 돌판 두루치기를 시작해 지금의 우주 최강 두루치기 맛집이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엔 40여년 동안 대를 이어 식당을 이끌어온 국선악(89)씨와 그의 딸 박성애(63)씨가 있다. 개업 후 24년 동안 어머니인 국씨가 이끌어온 식당을 딸인 박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운영한 지 벌써 17년째. 그런 만큼 '제일식당'은 이젠 동구 서부동의 이정표 같은 식당이 되었다.

곧 아흔의 나이가 되지만 모친인 국씨는 여전히 정정해 요즘도 가끔 식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인터뷰하는 날도 게서서 제일 궁금한 두루치기에 쓰이는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장에 대해 대뜸 물었다. 이제야 말하지만 두루치기 고기와 야채는 물론 나중에 밥을 볶아서 먹을 때도 환상적인 맛을 내는 그 양념장이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것. 그러자 국씨가 말했다. "그건 함부로 가르쳐 줄 수 없고, 내랑 자(딸)랑만 아는 비밀이야." 다만 직접 담그는 고추장이고, 충북 단양에서 고춧가루를 사온다고 했다.

두루치기는 냄비부터 끝내준다. 굳이 씹을 써서 고기를 입에 털어 넣지 않아도 그 냄새만으로도 행복해진다. 퇴근길에 복작대는 제일식당을 지나가며 난 늘 그 냄새를 맡으며 고민에 빠진다. 들어갈까, 말까. 한잔할까, 말까. 하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못 지나갈 것 같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거든. "사장님, 오늘도 두루치기 1인분에 소주 1병요!"



작은 섬표, EAST 울산 해파랑길 사운드워킹

## 자연을 담은 사운드워킹

천애란 명예기자



열매달(9월) 초입에 울산 동구에서 마련한 '작은 섬표, EAST 울산 해파랑길 사운드워킹'에 참여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자'는 슬로건으로 90여분동안 슬도와 대왕암공원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었는데, 사운드장비(헤드셋, 지향성마이크)를 활용했기에 자연이 전하는 소리를 오롯이 귀에 담을 수 있었다.

자동차, 기계 소리 등 소음에 많이 노출되면 자연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이 전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과 스트레스 등 마음의 병이 오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를 귀에 담기만 해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함께한 일행들과 제일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파도가 칠 때마다 거문고 소리가 난다는 슬도 였다. 그곳에 있는 바위에는 약 120만개 정도의 크고 작은 구멍이 있다. 과연 이 구멍은 어떻게 났을까. 그건 돌맏조개가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윗돌에 달라붙어서 구멍을 만들어 보금자리로 사용하면서 생존했다고 한다. 전국 해안 중에 이런 곳은 보기 힘든데, 생태 지질 연구에 중요한 섬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해설사의 진지한 설명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선배 해녀들이 후배 해녀들에게 물질을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한 숨'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물질을 한 후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한 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욕망을 버리고 내 숨대로 살면 풍성한 터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눈앞에 큰 전복이 보여서 욕심 부려 그걸 더 따는 바람에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된다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마지막 '한 숨'을 남겨두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어디선가 '호오이, 호오이' 하는 숨비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쩌면 그 생명의 소리는 때로 우리들의 느슨해진 열정을 깨워주는 경고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던 마음이 식어가는 이가 있다면 바다로 가보자. 그리고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가만히 들어볼 일이다.





전문해설가의 감성 가득한 설명은 행사 분위기를 더욱 흥미롭게 이끌어 주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편안한 자리를 찾아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성끝마일로 향했다.

이곳 명칭은 마성의 끝자락이라 해서 붙여졌으며,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말을 키우던 국영 목장이 있었다고 한다. 그 흔적으로 돌담이 아직 남아있으며 소가 물을 먹던 음수지도 보존되어 있다.

이번엔 길동무 중 두 사람의 참가 소감을 들어 보았다. “예전엔 이 길을 걸으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자연의 소리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오롯이 자연이 전하는 소리에 몰입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평소 무심히 들었던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를 가슴속에 추억으로 담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관광 상품이 앞으로 동구 관광산업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겠다”고 했다. 전문해설가는 이 행사가 의도한 바가 잘 전해진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 삶에 진정한 쉼표가 필요한 사람은, 꼭 이곳을 찾길 권해본다.

쪽빛 바닷길과 연초록 숲을 걸으며 자연이 전하는 소리에 집중해 보라.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 소음을 날려주고 생태감수성을 되찾으며, 새로운 자연의 소리를 발견하는 해파랑길 사운드 워킹은 지난 잎새달(4월)부터 진행됐다. 부산, 서울 등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울산 동구의 2024년 하반기 사운드워킹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요일~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울산 동구청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구글폼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작은 쉼표, EAST 울산 해파랑길 사운드워킹**

문의 | 051)626-8816

※ 투어확정 시 개별문자발송



사진 김옥경 명예사진기자



동구의 오래된 가게를 찾아서

## 기술과 사람을 잇는 시간 여행

### 전하동 새한전자

박유생 명예기자

울산 동구의 오래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곳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며, 각 가게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이 얹혀 있다.

이러한 오래된 가게들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숨 쉬어 온 공간으로 그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디지털 기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전자제품 수리만을 천직으로 알고 꾸준히 운영해온 '새한전자'라는 가게가 울산 동구에 있다.

이 가게는 단순한 전자제품 수리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추억과 삶의 일부분이 되어온 공간으로, 그곳에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들의 손길과 서비스 정신을 느낄 수 있다.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200m 정도 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새한전자 수리점은 현대중공업 창립 전부터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시던 형님이 별세하시면서 양윤길 사장(69세)이 이어받아 현재의 위치로 이

전하여 4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오래된 전자제품들이 뿔뿔하게 쌓여 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가게가 있어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고장 나면 고쳐서 사용했다.

그 당시에는 수리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바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람들의 삶이 풍부해지고 생활에 편한 다양한 전자제품들이 증가하다 보니 고쳐 쓰기 보다는 새로 사기 시작하면서 제품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여러 차례 폐업을 고민했으나 가끔씩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단골들과 오래된 전자제품을 수리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양윤길 사장은 타고난 손재주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제품 수리능력이 뛰어나 타 지역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음향장비, 전자악기 및 가전제품 등 모든 전자제품 수리가 가능하며 특히 AS센터에서 수리가 안 되는 제품이나 요새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제품 등 모두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빈티지 전자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리 및 재사용을 장려하는 DIY(Do It Yourself)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리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양윤길 사장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수리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은데 배울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며 “동구 화정동에서 태어나서 자란 내가 고향을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아름다운 우리 이웃

## "우리는 서로 아낌없이 나눠요"

운동으로 재능 기부하는 우크라이나인 마리나 씨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신기하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은 없다. 세세히 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신의 보폭에 맞춰 걸어가고 있다. 알다시피 등에 진 삶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없다. 더욱 가볍게 만드는 각자의 방식이 있을 뿐.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인 누하예바 마리나(Nuhayeva Maryna)씨와의 만남은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환한 그녀의 미소는 주변을 밝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에 있음을 그녀를 만나는 사람은 금방 알게 된다. 마라나와 동구와의 첫 인연은 슬픔 속에서 시작되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중국에서 살던 마리나와 가족들은 코로나 시기 중국의 국경 봉쇄로 인해 남편과 떨어져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다. 그 시기 러시아의 침공으로 그녀가 살던 도시, 카슨이 전쟁 시작 첫 주에 러시아군에 점령되었다. 3개월 후 가까스로 점령지에서 벗어났고 남편의 근무지가 한국으로 옮겨지면서 2022년 가을, 고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안고 울산 동구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동구에서 생활한지 3년째.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 우크라이나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은 여전히 그녀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만 또 한편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금자리가 되어준 이곳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정은 명예기자

마리나의 삶에서 운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아주 좋은 활력소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운동을 한국에 와서 다시 시작하고,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요즘은 그녀의 일상이 많이 즐거워졌다. 약 2년 전 회원 한 명으로 시작한 PT 수업은 현재 7명으로 늘어났다.

매일 오전 8시 40분, 트레이너로 하루를 시작하는 마리나는 그녀의 재능을 나누며 더욱 많은 것을 얻는다. 함께 하며 서로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받는다. 단체 카톡방에서 서로의 언어를 나누고,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식사한다. 올여름엔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체험 교실에 등록해 패들 보드를 매주 타기도 했다.

처음으로 패들 보드를 타면서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지만, 지도 강사들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무척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운동 팀원들과 육지가 아닌 바다 위에서 보드를 타며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누며 좋아하는 장소로 산책을 자주 나가는 마리나와 가족들에게 이제 이곳은 가장 사랑하는 고향이 되었다.

Life is an amazing thing, and sometimes it presents incredible challenges, amazing events or unexpected meetings. I am glad that despite everything, I found myself surrounded by friends, in the beautiful country-South Korea, in the wonderful Ulsan city, in the beautiful Dong-GU district, in a cozy apartment in Ipark. Wonderful people with big souls and open hearts live here, to whom I will never tire of saying thank you for everything!

(인생은 놀라운 일이고, 때로는 엄청난 도전, 놀라운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만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멋진 울산시, 아름다운 동구, 아이파크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 기쁩니다. 큰 영혼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이웃

##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알려 갑니다"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동네방네 지킴이' 무궁화 꽃단지 만들기 사업

김상희 명예기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 무궁화를 알려가는 지역 주민 모임이 있다.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팀인 동구의 '동네방네 지킴이' 대표 최도영님은 지난 3월 1일 105주년 삼일절에 태극기를 게양하면서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태극기가 게양된 세대가 몇 되지 않는 것을 보고 1919년 3월 1일 꽃다운 나이에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 희생이 점점 잊혀 가는 듯 하여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요즘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가 많지 않고 또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척 놀라고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동네방네 무궁화 꽃단지 만들기'를 공모해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무궁화 꽃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동네방네 지킴이'는 무궁화 꽃단지 만들기과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초에 '동네방네 무궁화 꽃단지 만들기' 사업으로 전하2동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과 어린이 등 10여 명과 함께 아파트 주변에 20여 그루의 무궁화나무를 심었다.



동네방네 꽃단지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무궁화를 직접 심고 자기가 심은 나무에 나이와 이름 등을 적은 이름표를 달고 물 주기와 잎 따주기 영양제 주기 등을 하면서 자기만의 애착 나무로 키워 가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무궁화 심기에 동참했던 이선미님은 "동네방네 무궁화 꽃단지 만들기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참여자 부모님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소통을 하고 서로 협동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흐뭇했다"고 말한다.

동네방네 지킴이에서는 4월에 처음 실시한 무궁화 심기 사업의 호응이 좋아서 지난 9월 7일 무궁화 심기 두 번째 행사를 가졌다.



아름다운 우리 이웃

## 동구의 문화발전을 이끌어가는

### 울산 동구문화원

유병기 명예기자



울산 동구문화원(원장 지종찬)은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6길4, 1층(화정동)에 위치해 있다.

동구문화원은 울산 동구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되었다. 그동안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를 보전, 전승하며 문화도시 동구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소(소장 장세동)을 통해 지역 향토사를 알려가고 있다.

울산 동구문화원은 동구 주민을 위한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한·일 문화교류, 힐링 문화 강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동구의 문화유산인 동축사 3층 석탑과 남목마성, 주전봉수대 등을 알려나가는 일도 하고 있다.

동구문화원은 지난 5월 22일~7월 9일 3개월동안 매주 수요일 마다 문화원 2층 강당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함께 하는 문화유산 여행-다같이 돌자, 동구 한바퀴'를 주제로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20명을 모집해 교육을 했으나 호응이 좋아 올해는 40명을 모집해 강의를 열었다.

교육 내용을 보면, '울산과 호랑이 사냥꾼' '문화사적 봉수대 이야기' '울산문화 속에 나타난 동구' '울산 덧배기 춤' '마을 아카이브' '동명으로 본 울산 읍지' '근대역사 동구' 등으로 장세동 동구문화원 지역사연구소장을 비롯해 전문 강사가 열강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동구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행사 개최,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등 동구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우리 이웃

## 동구슬도문학회 창립을 알립니다

이우명 수필가 · 동구슬도문학회 회원



울산 동구지역 문인들의 모임인 '동구슬도문학회'가 창립됐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작가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몇몇 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뜻을 모은 결과 친목의 장인 동구슬도문학회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남쪽 옥류천 맑은 물소리가 더위를 잠시 잊게 하고 묵향이 실내에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옥류산방 연재서실에서 지난 7월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는데, 30여명에 가까운 문인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를 보면 그 동안 동구지역 문인들이 이런 모임 결성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마음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었다.

동구슬도문학회는 동구에 거주하면서 등단한 문인들이 작가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창의력을 고취하면서 동구의 문화예술 활동과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작에 대한 지원 사업도 전개하며, 출판물 교류 및 연구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내의 이름 있는 작가를 초빙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저명한 작가와 관련된 문화 선진지를 탐방하여 보고 배우며 그들의 문학세계에 대한 이해심을 넓히는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문예지 <슬도문학>을 발간하고, 지역 예술 행사에서 시 낭송 및 시화전도 가질 예정이다.

그래서 폭 넓은 문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희곡 등 문학 장르별 분과를 두었으며, 특히 상주 외국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다문화분과도 두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예 창작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정도영 씨가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김금만 임정두 씨가 부회장을 맡았고 김순옥 씨가 사무국장을 맡아 앞으로 슬도문학회를 꾸려 갈 예정이다.

동구슬도문학회를 통해 앞으로 동구 문인들의 폭 넓고 깊이가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동구 슬도문학회

**고문단** 천성현 권영해 추창호  
**회장단** 정도영 김금만 임정두 김승재 김병상  
**사무국장** 김순옥  
**편집국장** 곽종희

**이사** 김기영 김순연 정영숙 정순연  
**회원** 김봉임 김미숙 김용숙 김영숙 권정남 남은우 남연희 박마리 박영우정미 윤명자 이우명 조다남 전정희 최선자 황보양 홍복연



## 아름다운 우리 이웃

# 청년, 카메라를 들다

이진규 명예기자



트렁크를 열자 군용장비가 들어 있을 법한 큼직한 상자가 한 눈에 들어온다. 색깔이나 생긴 걸로 봐서는 바닥에 대충 던져도 될 것 같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권민제씨. 가방에는 제법 값이 나가 보이는 카메라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쿠션 속에 들어 있다. “제 전재산입니다.” 곱슬머리에 붙임성 있어 보이는 얼굴이 씩씩 웃어 보이며 한 말이다.

권민제씨는 영상제작자이다. 서른 중반을 넘어서 나이에 아트랙 필름(Art rack film)이라는 회사를 차렸다. 사실 그가 중학생일 때 부터 알고 지냈기에 어지간한 것은 아는 사이라 여겼는데 영상제작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뜬금없기도 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든 모습이 그럴싸하다. 뷰파인더에 집중한 눈매도 낯설 정도로 진지하다.

비보이를 한다며 동구청소년문화의집에 왔던 철부지 소년이 청년이 되어 창업가가 된 것이다. 전문 댄스팀에서 나름 스타일 좋다는 평을 받던 그가 현란한 춤 대신 포커싱을 실 틈 없이 돌린다.

영상매체가 대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동구에 사업장을 차리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의 대답은 달랐다. “동구는 노다지입니다. 돈이 돼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문화예술 쪽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시장이랄 것도 없는데 뭔가를 더 해보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걱정한 사람을 머쓱하게 만드는 대답이었다.

춤만 추다가 직장생활도 했었고 영상이라는 길을 만나서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가 공부도 시작 했다고 한다. “막상 해보니까 배워야겠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다면 많이 보고 많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꼭 받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세상의 어떤 특별함도 청년의 열정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고향이란 참 쉬운 곳이다. 아는 사람, 익숙한 골목, 소소한 이야기까지. 하지만 그 별스럽지 않은 곳을 별스럽게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권민제 같은 청소년이 꿈 꿀 수 있어야 하고 권민제 씨 같은 청년이 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때 맨땅 같은 동네가 문화 노다지가 되지 않을까. 이곳 동구에서 자라 동구에서 제몫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의 열정이 그것을 가능케 하리라 믿음이 생긴다.





와인으로  
쓴 편지

## 이런 날엔 이런 와인

임승수 &lt;와인에 몹시 진심입니다만,&gt; 저자



## 비도 오고 뭔가 감정적인 날

돈나푸가타 안셀리아 (가격 2만 원대)

와이너리 이름인 돈나푸가타(Donnafugata)는 이탈리아어로 '도망간 여인'이다. 왕비 마리아 카롤리나를 의미하는데 19세기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다스리던 페르디난도 4세의 아내다. 남편에게서 도망간 건 아니고 위풍당당한 나폴레옹 군대를 피해 시칠리아의 한 건물에 머물렀는데, 지금의 와이너리 건물이다. 라벨에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는 아름다운 여성(마리아 카롤리나)이 그려져 있다.

비도 오고 뭔가 감정적인 날이면 이 와인에다가 부추전, 감바스 알 아히요를 곁들이면 어떨까. 시칠리아 토착 품종인 카타라토와 안소니가가 블렌딩됐는데 사과, 배, 복숭아가 떠오르는 은은한 과일 향에 신선하고 경쾌한 산미가 부추전과 감바스 알 아히요의 기름기를 말끔하고 상큼하게 씻어내린다. 창밖 빗방울을 한참 바라보다가 와인 라벨 속 여인으로 눈길을 돌리면 무려 나폴레옹 군대에 쫓기는 이 사람의 신세보다는 내가 그래도 낯지 않나 싶어 묘한 안도감이 든다.

## 무덥고 습하고 짜증 나는 날

클라우디 베이 소비뇽 블랑 (가격 4만 원대)

대한민국에서 한여름에 카뮈 <이방인>를 읽는 건 주인공 '피르소'의 분노와 돌발행동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 사람과 살짝 스치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후덥지근한 때에는 그저 시원한 화이트 와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재력이 받쳐준다면 프랑스 부르고뉴 '피르소' 지역의 고급 샤르도네 와인을 마시면 좋겠지만 현실은 마트에서 가성비 좋은 녀석을 찾아 헤맬 뿐이다. 마트 와인이라면 역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품종이 훌륭한 선택지겠지. 그중에서도 나름 명품인 클라우디 베이의 청량함과 시원함은 한 모금만 영접해도 땀방울을 피하는 두더지처럼 땀이 다시 땀구멍으로 숨어들 정도다. 더위를 안주 삼아 벌컥벌컥 마셔도 좋고, 출출하다면 차가운 샐러드나 포케와 같이 마셔도 그만이다.

## 태풍이 오는 불안한 날

몰리두커 블루 아이드 보이 (가격 6만 원대)

와인 라벨에 아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몰리두커 와이너리 설립자의 자식이다. 블루 아이드 보이는 파란색 눈이 예쁜 자기 자식을 일컫는 명칭이다. 생각해 보라. 라벨과 명칭에 자식을 새겨 넣은 와인을 그 어느 부모가 대중 만들 수 있겠는가. 블랙베리 향과 초콜릿 향, 강렬한 타닌, 높은 알코올 도수가 휘몰아치는 풀바디 와인이다. 호주 시라즈 품종의 매력을 한껏 뽐낸다. 태풍으로 비바람이 몰아쳐 창문 유리창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저녁 시간. 아이들은 천둥번개 소리가 무섭다고 이불속으로 파고든다. 그럴 때면 진득한 바비큐 소스가 발라진 고기에 이 와인을 즐기면 어떨까. 입안에서 휘몰아치는 맛의 태풍 덕분에 창문 밖 태풍은 어느덧 쭈그리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으로 라벨 속 아이와 이불속 아이와 겹쳐 보이면 인생에 그 어떤 태풍이 다가오더라도 기필코 견뎌내겠다는 의지가 용솟음친다. 아빠는 남자보다 강하다!



## 도파민 뽐뽐 화창한 날

샤또 데스클랑 위스퍼링 엔젤 로제 (가격 2만 원대)

돗자리 챙겨 동네 공원 잔디밭에 깔고 그 위에 누워 푸르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고 싶은 날씨에는 누가 뭐라 해도 로제 와인이 떠오른다. 잔디에 살랑거리는 미풍이라도 불어주면, 구강 내에도 산들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슬며시 고개를 든다. 샤또 데스클랑 위스퍼링 엔젤 로제를 칠링 백에 넣어서 가져왔다면 만사 해결. 함께 챙겨온 휴대용 와인잔에 따르니 특유의 투명한 연분홍색이 넘실거린다. 꽃, 딸기,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잔망스러운 향에 풋과일이 연상되는 산뜻한 산미와 은은한 단맛이 수면 전에 듣는 ASMR처럼 감각 세포들을 간드러지게 자극한다. 왜 이 와인의 이름이 '위스퍼링 엔젤(Whispering Angel)'인지 알겠구나. 그렇게 천사의 속삭임에 녹아들다가 대략 7분 후 꿀잠에 빠져든다.



클래식,  
동구를만나다

## 가을밤의 서머타임

서아름 피아니스트 · 동구 출신

유달리 길고 더운 여름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가을밤의 여름날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Summertime〉이란 노래가 있다. 썸머타임~ 하고 시작하는 이 노래를 들어보면 '아~ 이 노래' 하고 재즈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테지만 사실은 미국 출신 작곡가 조지 거슈윈(Georg Gershwin: 1898~1937)의 오페라 〈포

기와 배스: Porgy and Bess〉중 나오는 노래로 아기를 재우며 부르는 자장가이다.

포기와 배스는 오페라 주인공 이름이다. 앓은뱅이 거지 포기와 여주인공 배스. 흑인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 미국인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오페라는 서양 고전음악의 종합예술로 여겨진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오페라 가수들이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모든 극의 내용에 따라 의상과 무대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술 종합선물세트 같은 거다.

그리고 거슈윈이 활동하던 시기 역시 여전히 오페라는 상류층의 문화활동이었다. 그런데 그의 오페라 〈포기와 배스〉에 나오는 몇몇 단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흑인이며 살인, 도박, 마약 등 그야말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을 담아낸다. 보통 오페라에서 다루는 가벼운 사랑 이야기, 무거운 사랑 이야기, 진실한 사랑 이야기 또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오페라에서 흑인 빈민촌 이야기라니 그것도 미국에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소재를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 조지 거슈윈을 알아보자.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슈윈은 가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이미 20대에 그는 부와 명성을 모두 얻은 성공한 작곡가 반열에 올랐다. 러시아 유대계 혈통인 거슈윈은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는데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고 형이 배우는 피아노를 어깨너머 배운 게 전부였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악보 출판사에 취직해 여러 음악들을 접하고 작곡을 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음악은 장

르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랩소디 인 블루〉는 그의 음악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인데 이 작품 이후 그는 고전 클래식 음악과 작곡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며 순수음악을 공부하고 싶어 당시 유명한 작곡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 볼레로를 작곡한 프랑스 작곡가)에게 배움을 요청하지만 라벨은 '당신은 이미 일류 거슈윈이잖소. 왜 이류 라벨이 되려고 하나'며 거절한다.

그 후 거슈윈은 그의 재즈음악에 고전 클래식을 접목시키며 더욱 완성도 있는 음악들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는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포기와 배스〉이다.

가난했던 이민자 2세 거슈윈은 미국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자란 그의 인생은 흑인들의 인생과 많은 부분 겹쳐있었다. 자연스럽게 흑인영가와 재즈를 접했고 그들과 그들의 음악을 이해했다. 그렇게 가장 미국적인 재즈 오페라가 완성된 것이다.

대중에게 발표한 이후 호평과 혹평이 쏟아졌다. 흑인영가와 재즈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을 두고 오페라인지 뮤지컬인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었고 그 후로 원작과 다르게 뮤지컬로 각색하여 무대에 올려졌다. 뮤지컬은 현대적으로 변형된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페라는 모든 것을 노래로 전달해야 한다면 뮤지컬은 말로 내용을 전달하는 대사가 있고 노래도 있으며 노래의 발성도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오페라에는 노래를 대신한 대사들이 섞여있다. 특히 이 작품은 흑인영가와 재즈음악을 접목한 작품이다 보니 순수 고전 오페라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페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거슈윈은 수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작품 발표 2년 후 세상을 떠났다. 대중들은 장르의 논란과는 상관없이 그의 음악을 사랑했으며 오페라 안의 수많은 아리아들은 지금까지도 재즈 연주자와 클래식 연주자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작으로 연주되고 있다.







## 벌거벗은 임금님

울산인권운동연대 '인연' 편집위원회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줄거리를 살펴볼게요.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허영심 많은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두 명의 사기꾼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뛰어난 옷감 제조업자라 소개하며 자신들이 특별한 옷감을 짤 수 있는데, 그 옷감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옷감을 주문합니다. 사기꾼들은 많은 돈과 비단을 받아 베틀에 앉아, 아무것도 짜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합니다. 옷감 제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한 임금님은 신하들을 보내어 확인해 보지만 신하들은 자신이 어리석거나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워 옷감이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마침내 사기꾼들은 옷이 완성되었다며 임금님에게 그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옷을 볼 수 없었지만 신하들이 보인다고 하니 자신도 보이는 척하며 행차에 나섰습니다. 백성들 또한 아무도 어리석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옷을 칭찬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어!" 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진실을 인정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님은 부끄러웠지만 행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임금님은 허영심을 버리게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주는 교훈을 말하면 보통 임금님에 초점을 맞춰 '허영심과 자만심은 위험하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신하들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교훈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화 속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은 두 명의 사기꾼입니다. 자신들을 특수 옷감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옷감 제조업자라며 임금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의 눈에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하들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

문이지요. 동화 속에서 두 명의 사기꾼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자기반성만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가 조금은 불편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이 더운데 그곳에 갔니?",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안전하게 일을 했어야지!", "똑바로 보고 길을 건너야지!" 등등.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 행위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떠한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행위이구요.

피해자의 잘못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점점 작아집니다. 피해자의 자기반성과 가해자의 책임은 별개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잘못에는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피해자의 잘못을 들춰내어 가해자에게 면책이 주어지는 사회는 공존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누구에게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는데 말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에 임금님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놀아났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은 인정합시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진실 앞에 웃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구요. 임금님도 반성하고 허영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사기꾼들의 '부'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2024-  
2025절기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아래 대상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일정		준비물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2011.1.1.~2024.8.31.)	2회 접종 대상자	2024.09.20.(금) ~ 2025.04.30.(수)	아기수첩, 보호자 신분증
	1회 접종 대상자	2024.10.02.(수) ~ 2025.04.30.(수)	
임신부	2024.10.02.(수) ~ 2025.04.30.(수)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등
65세 이상 어르신 (1959.12.31.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2024.10.11.(금) ~ 2025.04.30.(수)	신분증
	70~74세 (1950.1.1.~1954.12.31.출생자)	2024.10.15.(화) ~ 2025.04.30.(수)	
	65~69세 (1955.1.1.~1959.12.31.출생자)	2024.10.18.(금) ~ 2025.04.30.(수)	
지자체 대상자	19~64세 (1960.1.1.~ 2005.12.31.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혹은 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 혹은 국가유공자증
	14~18세 청소년 (2006.1.1. ~ 2010.12.31. 출생자)	2024.10.14.(월) ~ 2025.02.28.(금)	신분증

## • 동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의료기관 58개소

동별	의료기관명	주소	어린이 참여	임신부 참여	어르신 참여	지자체 참여	동별	의료기관명	주소	어린이 참여	임신부 참여	어르신 참여	지자체 참여
방어동 (11개소)	그린메디의원	동구 화문로 75, 2층	○	×	○	×	전하동 (16개소)	감마디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85, 602호	×	×	○	×
	김광국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82, 2층	×	×	○	○		강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99	×	×	○	×
	대한의원	동구 월봉6길 40	○	×	○	○		김용기내과의원	동구 전하로 2	×	×	○	×
	바른윤의원	동구 문재6길 4	○	×	○	×		로즈메디산부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47	○	○	○	×
	박정운의원	동구 꽃바위로 311	○	○	○	○		박가정의원	동구 진성4길 57	○	×	○	×
	방어진마린요양병원	동구 중진길 60	×	×	○	×		상록수요양병원	동구 진성8길 94, 4~8층	×	×	○	○
	방어진의원	동구 동진로 6	×	×	○	○		상쾌한연합이비인후과의원	동구 진성4길 118	○	○	○	×
	시민의원	동구 문재7길 5, 2층	○	○	○	○		세화연합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25	×	×	○	×
	우리연합의원	동구 꽃바위로 350	×	×	○	×		손석호내과의원	동구 진성4길 128, 3층	○	○	○	○
	이창우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05	×	×	○	○		안신경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99	×	×	○	×
	제일의원	동구 문현로 40-1	×	×	○	×		우리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47, 2층	○	○	○	○
일산동 (5개소)	365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45, 5층	○	○	○	○	남목 1·2동 (10개소)	이용하비뇨기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87	×	×	○	×
	동울산영상의학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3, 9층	×	×	○	×		이재담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구 진성4길 90, 2층	×	×	○	×
	신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1	○	○	○	○		정병오내과의원	동구 진성4길 118, 201호	○	×	○	○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1, 401호	○	×	○	×		주호섭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진성4길 90	○	○	○	○
대송동, 화정동 (12개소)	울산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D동 3층	○	○	○	○		울산대학교병원	동구 대학병원로 25	○	×	×	×
	강남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7	○	×	○	○		늘푸른산부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0	○	○	○	×
	동산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대학길 75	○	×	○	×		미래이동병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62	○	×	○	○
	소창목소아청소년과의원	동구 월봉8길 54	○	○	○	○		본정형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3, 2층	×	×	○	×
	송병수의원	동구 대학길 35	×	×	○	×		윤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20	○	×	○	×
	신통의원	동구 대학길 130, 4층	○	×	○	×		임태균산부인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25	○	○	○	×
	아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4, 3층	○	×	○	×		진화신경외과의원	동구 명덕6길 14	○	○	○	○
	연세내과의원	동구 대학길 74	○	×	○	×		한솔연합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38	○	×	○	○
	우리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대학길 40, 2층	○	×	○	×		현대이비인후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27-1	○	○	○	×
	참사랑의원	동구 대학길 65, 2층	○	×	○	×		현대편안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37	×	×	○	×
	최형경내과의원	동구 대학길 71, 2층	○	×	○	○	남목3동 (4개소)	화목한내과의원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1	○	○	○	○
	한솔정형외과의원	동구 대학길 77	×	×	○	○		동부의원	동구 안산로 50	○	×	○	×
	화정현대의원	동구 월봉로 14	×	×	○	×		박성연내과의원	동구 남목17길 4, 2층	○	○	○	×



울산 남목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추천 도서



### 천 개의 파랑

천선란 저 | 허블

SF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예견하는 장르라면, '천 개의 파랑'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희미해지는 존재들을 울곧게 응시하는 소설이다.

기술의 발달이 배제하고 지나쳐버리는 이들, 엉망진창인 자본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 부서지고 상처 입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들을 다정함과 우아함으로 엮은 문장의 그물로 가볍게 건져 올린다. 그의 소설은 희미해진 이들에게 선명한 색을 덧입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5번 레인

은소홀 저 | 문학동네

열세 살 수영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5번 레인'은 수영이라는 소재로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한강초등학교 수영부 에이스인 나루는 라이벌 초희에게 어느 날부터 1위 자리를 내주게 되고 롤모델인 언니는 수영을 그만둔다. 베프인 송남이와 자꾸 부딪치고, 수영을 배우고 싶어 한강초등학교로 전학 온 태양이가 신경이 쓰인다. 열세 살 아이들의 고민과 선택, 좌절과 성장, 그리고 우정과 사랑이 고루 담긴 '5번 레인'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게으른 요가

사키타 미나 지음 | 애니북스

요가를 배우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만화가의 요가를 다룬 지식정보 만화책이다. 대표적인 요가 자세 포인트를 잘 잡아 표현하여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요가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설명한다. 복도를 활용해서 팔을 스트레칭 하는 방법과 화장실에 앉아서 하는 어깨 스트레칭 방법이 재밌게 설명되어 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요가를 배울까 고민 중이거나, 이제 막 요가를 시작한 초보자들이 일상에서 따라 하며 요가인의 세계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유익하고 재밌는 만화이다.



### 안녕, 지구 5반 : 지구 영웅들로부터

에린 딜리 지음 | 청어람미디어

그림책 '안녕, 지구 5반 지구 영웅들로부터'는 지구와 5반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이 지구에게 너를 돕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이후 지구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들을 이야기 해준다. 안 쓰는 전기불 끄기, 일회용 컵 쓰지 않기, 나무 심기, 걷거나 자전거 타기, 물 절약하기 등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마지막에는 지구 영웅 서약과 지구 영웅이 되기 위한 4가지 실천 계획도 있다. 책을 읽고 함께 지구 영웅이 되어보면 좋을 것이다.

BOOK

##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남목도서관 작은도서관 4곳	독서의 달 행사	지역주민	9월	프로그램, 강연, 공연 및 체험 활동 등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역주민	9월 ~ 11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대출 2배 및 연체 해제, 프로그램 진행

##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협력	〈마성 만화도서관〉 꿈다락문화예술학교 '숲탐장:숲에서 온 편지'	초등 2~4학년	4월 ~ 11월	토요일 숲체험 놀이 활동 (진행 : 온새미로 숲배움터)



## 9월~11월 남목&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홈페이지 : 울산동구 통합도서관 <https://library.donggu.ulsan.kr/>

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기간	내용
남목도서관 052)209-4586	맛있는 동화놀이	6~7세	10월~12월	동화를 듣고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상상력, 창의력 키우기
	어린이 건축교실	초등 1~4	10월~12월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 활동에 대한 상상력과 흥미 일깨우기
	놀이랑 과학실험	초등 1~2 초등 3~6	10월~12월	과학 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하며 과학 원리와 개념 학습
	스케치북으로 떠나는 세계일주	성인	10월~12월	그림책작가와 어반스케치 기초를 배워 그림그리기
	성인 독서회	성인	10월~12월	그림책을 읽고 주제에 맞는 토론
	어린이 독서회	초등 3~6	10월~12월	독서 후 함께 토론하며 여러 가지 독후활동 경험
꽃바위작은도서관 052)209-4337	디지털 배움터	성인	9월~12월	미리캔버스, 동영상 만들기 등 디지털 학습
마성 만화도서관 052)209-3947	성인 중국어 회화	성인	9월~11월	성인대상 중국어 문법과 회화 연습
	어른을 위한 즐거운 보드게임	성인	9월~11월	성인 대상 두뇌개발보드
	시 필사하기	성인	9월~11월	어르신 대상 시 필사하기
	어린이 중국어 회화	초등 전학년	9월~11월	어린이 중국어 회화 배우기
전하작은도서관 052)209-3936	동.그.라.미	다문화 부모	9월~10월	동요와 그림책을 활용한 한글 수업
	두근두근 그림책 연극놀이	초등1~3	10월~11월	그림책을 활용한 마음 열기, 애착 놀이 통해 소통하기
	그림책에 풍당	초등1~3	10월~12월	책읽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력, 사고력 기르기
	생각이 쑥쑥 Creative Reading	초등1~3	10월~12월	영어로 된 짧은 스토리 읽고 창의 모둠 활동하기
	시간의 흐름대로 엮보는 역사이야기	초등2~3	10월~12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 배우기
	그림책 원예 테라피	성인	10월~12월	그림책 읽고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여 작품 만들기
화정아이꿈누리도서관 052)209-3950	창의독서 미술&요리	6세~ 초등2학년	9월~11월	동화와 함께 미술과 요리 수업을 접목하여 다양한 작품 만들기
	초등 일상 영어 회화	초등 1~4학년	9월~11월	영어 회화의 구조를 알고 기본 어휘를 활용한 일상회화 배우기
	책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초등 1~3학년	10~12월	책을 함께 읽고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원만한 친구관계 배우기
	어린이 건축 교실	초등 1~3학년	10월~12월	건축을 중심으로 과학과 기술 수학 등을 연계하여 문제해결 및 창의적 작품완성
	초등종이접기 자격증반 1~3급	초등 전학년	10월~12월	종이접기 자격증 1~3급 취득 가능 * 한국종이접기협회 교재사용
	내 진로를 찾아 도서관으로 떠나자!	초등 전학년	9월~10월	가족공예가, 아로마테라피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 보는 활동



### 꽃바위문화관

#### 공연 안내

문의 : 꽃바위문화관 052)209-4330

#### 룬디마틴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일시·장소** : 9. 28.(토) 오후 5시/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  
**공연내용** : 창작곡, 편곡한 기성곡, 리메이크 등 11곡 공연  
**관람료** : 성인 3,000원 / 청소년 1,000원

#### 꽃바위문화관 수요상설공연

**일시·장소** : 월 2회 /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  
**공연내용** :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관람료** : 무료

#### 내드름 연희단

**일시·장소** : 11. 5.(화) 오후 7시 30분 / 꽃바위문화관 3층 공연장  
**공연내용** : 연희극  
**관람료** : 성인 3,000원 / 청소년 1,000원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소식

### 무료법률상담 참여자 모집

- 일 시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4:00~16:00 (월 1회)
- 장 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 모집대상 : 울산 동구 주민 (취약계층 우선)
- 내 용 : 임차, 채무, 이혼 등 생활법을 관련 상담
- 연 계 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사 법률상담터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1465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참여 안내

- 진행일시 : 매월 2회 /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14:00~16:00
- 장 소 : 내방어후면시아아파트 광장
- 대 상 : 울산동구 지역 내 지역 주민
- 활동내용 : 사회복지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복지상담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1465

### 다희소(다함께 놀이로 소통하다)

#### - 놀이 활동 체험 참여기관·시설 모집

- 모집기간 : 상시
- 장 소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사회
- 모집대상 : 아동, 부모-자녀, 노인, 기관 및 시설
- 활동내용 : 전통·전래놀이, 제로웨이스트 활동, 보드게임, 생활아트 등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2)236-1465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 재가노인복지센터 어르신 모집

- 모집기간 : 상시
- 대 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파킨스 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 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내의 어르신
- 사업내용 : 주간보호서비스, 등·하원 송영 서비스, 주회 목욕 서비스, 월1회 미용 서비스, 매일 건강체크, 약 복용 도움, 병원동행, 신체·인지 프로그램, 건강체조, 노래교실, 중식·간식제공
- 이용시간 : 월요일~토요일, 08:00~17:00
- 문 의 :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노인복지센터 052)236-1473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소식

### 건강증진실 이용 안내

- 장 소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건강증진실 (화정주공상가 건물 지하 1층)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공휴일 휴관
- 운동기구 : 발마사지기, 허리마사지기, 짐볼, 실내자전거, 스텝 퍼기구, 롱폴머신, 저소음 런닝머신, 아령세트, 스트레칭&근력 밴드세트
- 문 의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

### 화정다락방 북카페 이용 안내

- 장 소 : 화정다락방 북카페 (화정주공상가 건물 2층)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10:00~17:00, 토요일 10:00~16:00
- 내 용
- [카페]
- 커피 및 음료 기본 1,500원 ~ 2,500원대
-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보드게임 구비
- [도서관]
- 철학, 문학, 과학, 아동, 만화 등 3,700여권의 도서 구비
- 무료회원 가입 후 지역주민 누구나 대출·반납·열람 가능
- 숨은그림찾기, 방 탈출, 보드게임북 등 놀이 책 구비
- 매년 150여권의 신간도서 유입
- 연중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이벤트 진행
- 문 의 :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236-3139

### 마음을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 타로상담 '공감타로 테라피'

- 장 소 : 화정주공아파트 상가 건물 2층 211호 (동구 월봉10길 18)
- 기 간 : 2024년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10:00~11:30
- 대 상 : 타로상담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1:1 무료 타로상담 제공 및 마음 공감
- 15~20분 간격 1:1 타로상담 진행
- 직장, 연애, 건강, 1년 운세 등 현재와 미래 관련 상담
- 신청기간 : 상시 모집 진행
- ※상담일시 배정을 위해 사전 예약 필수
- 문 의 : 공감타로동아리 010-5410-6762,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052) 236-3139





## 우리동네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대왕암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봄 · 여름 · 가을 · 겨울, 1년에 4번 대왕암소식지가 발간됩니다. 울산동구의 구정소식과 유익한 생활정보,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미담을 담은 대왕암소식지를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happynews@korea.kr) 또는 울산 동구 홈페이지 (동구소식 → 대왕암소식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받습니다.

문의 울산 동구청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계 052)209-3048



###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한 출생가정  
\* 신청일 기준 출생일 15개월차 내 신청 가능
- 2. 지원내용**  
첫돌 사진 촬영비 지원 1인당 최대 10만원  
\* 1회 신청 가능
- 3. 청구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 4. 유의사항**  
울산 동구 관내 사업자등록된 사진관에서 촬영했을 경우에만 지원
- 5.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울산동구거주지

### Q & A

#### Q1. 둘 사진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둘 사진 아니더라도 15개월 내 아기 성장 사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 Q2. 지원 자격이 있나요?

A. 네. 신청인(부 또는 모)이 출생일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 Q3. 울산 동구 소재지가 아닌 사진관에서 촬영해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울산 동구 관내에 정식 사업자등록된 사진관에서 촬영해야 지원됩니다.

#### Q4. 촬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A. 실제 촬영비만큼만 지원됩니다.  
\* 예시: 촬영금액이 7만원인 경우 7만원만 지급

#### Q5. 2023년 6월 1일 출생아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출생아 15개월차까지 지원되므로 2024년 9월 30일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시

출생일	신청가능일
23년 6월 1일	24년 9월 30일까지
23년 11월 15일	25년 3월 14일까지
24년 4월 29일	25년 8월 28일까지

## 대왕암소식지 독자이벤트

지난 8월 동구 명덕로 19에 문을 연 '□□□□□□'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퇴직자지원센터였다가 얼마 전까지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운영되었으며, 이번에 근골격건강지원센터를 더하여 '□□□□□□'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이 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024년 10월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해 주소와 성명을 꼭 기재해주세요.

### ■ 보낼 곳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3층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계 대왕암소식지 담당자 앞  
(우편번호 44021)

### ■ 이메일 happynews@korea.kr

### ■ 문의 울산 동구청 기획예산실 미디어홍보계 052)209-3048

### ■ 2024년 여름호 독자이벤트 정답은 '청년 스테이지 온'입니다.

### ■ 지난 호 퀴즈 정답자

권민희 권오원 김나래 김덕수 김민지  
김보라 김사랑 김승룡 김연숙 박준수  
서동욱 이선영 장효선 전아현 정은경  
정자윤 최은주 최혜자 한효순 황채원





글 김명지 | 사진 이쌍식 명예사진기자

## 그래서 오늘도 걷는다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고 했다.

틈날 때 마다 걷다 보니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맨발로 파도와 모래를 밟으며  
사계절을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일 년 내내 하루 종일 열려있는 공간-

본디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파도와 바람의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 덕분에  
일산해수욕장에 맨발산책로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루를 보낼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도 걷는다.